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9월 12일(주일) 제1360호



40 DAYS FOR LIF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BORTION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태아의 소중한 생명과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평화적으로 기도하는
국제 기도 캠페인입니다.

Pray to **END ABORTION**

40 DAYS FOR LIFE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한국본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9월 22일(수)부터 10월 31일(주일)까지 열린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홍대입구역(2호선)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단체 ‘40 days for life(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서 주관한다.

오직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낙태 종식과 낙태산업 종사자들이 프로초이스(낙태 찬성)에서 프로라이프(낙태 반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전 세계 64개국 900여 개 도시에서 10만여 성도와 2만 개 교회가 8천 번 기도 캠페인을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한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개신교, 나머지 요일은 천주교에서 기도 캠페인을 주관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온누리교회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섬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도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가하

는 기도봉사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제공하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된다. 침묵 기도를 하면서 낙태 종식과 낙태 시술 종사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구하면 된다. 피켓과 기도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준비해준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9월 비전헌금

남아시아 K국 P국제대학 후원

9월 11일(토)과 12일(주일) 봉헌하는 9월 비전헌금은 남아시아 K국 P국제대학 기자재 구입, 치과 진료 설비, 여학생 기숙사 건립 등을 후원하는데 사용한다.

남아시아 K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다. P국제대학은 나라의 허가를 받고 기독교식 예배와 교육이 허용된 곳이다. 고등교육을 제공해서 남아시아 K국 국민들을 일깨울 리더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26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쌀 나누기 운동
순별로 헌금 봉헌, 공동체에서 대상자 선정

온누리교회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추수감사절 봉헌한 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운동이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9월 26일까지 순별로 추수감사주일 헌금 6만 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봉헌하고,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가 상의해서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이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면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회에 신청할 때는 쌀을 받을 주소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쌀은 농어촌교회에서 구입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배송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보다 헌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웃과 기관들에게도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릴레이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9월 21일 이주민 추석집회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가 9월 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온누리M 미션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15개국어로 송출되는 찬양, 설교, 강의 녹화와 녹음을 마쳤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는 오는 9월 21일(화) 온누리M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막 오른다.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심방도 할 예정이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중보기도에 동참해서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를 함께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함께해서 더욱 즐거워요!”

정하원, 정세아 자매의 ‘함께하는 묵상’

어린이신문 메일함에 작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자매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듣고 묵상한 내용을 글과 그림, 캘리그라피(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로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은 양재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정하원(17살, 언니), 정세아(14살, 동생) 자매예요. 정하원, 정세아 자매는 날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해요. “함께 해서 더욱 즐겁다”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하원, 정세아 자매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 부모에게 받는 재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보니까 자매이자 돌도 없는 친구랍니다.

“우리 가족은 독서 모임과 성경 필사, 말씀 나눔 등을 하면서 매일 교제해요. 그래서 저랑 세아가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나 부모님에게 말 못 할 비밀도 자연스럽게 터놓고 지내거든요.”



양재 파워웨이브 정하원(왼쪽), 정세아(오른쪽) 자매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캘리그라피와 글로 옮기고 있다.

정하원, 정세아 자매가 얼마 전부터 재미난 일을 하나 시작했어요. 홈스쿨링을 하는 다른 가정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에 작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등으로 찬양을 연주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때 고른 찬양이 ‘공감하시네’ 인데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때마침 어린이신문 작품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 찬양을 글과 그림, 캘리그라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정하원, 정세아 자매는 함께 작품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하원 언니랑 같이 어린이신문에 보낼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서로 찬양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작품을 보내기 전에 서로 부족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도왔어요. 원래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니랑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세아랑 같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제 그림과 캘리그라피에 세아의 묵상 글이 더해지니까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세아랑 같이 묵상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친구,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혼자 할 때도 즐겁지만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우리들 작품



〈사사 그리기〉

큐티한 내용으로 퀴즈를 맞춰보고, 성경책에서 본 그림으로 색칠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김시완 학생(수원 차세대 초등부 3학년)

성경,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그림과 설명을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안톤 반 다이크(Anthony Van Dyck) 작품.

출제범위 9월 1~12일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

1. 이 사람은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나실 사람(술)을 마시지 않고 칼을 몸에 대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사)으로 구별되었어요(삿 13:5).
2. 이 사람이 라맛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어요(삿 15:16~20).
3.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어요(삿 16:1~5).
4. 이 사람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결국 블레셋에게 붙잡혔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힘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은 기도를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삿 16:18~30).

*이름, 소속, 연락처와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6. 팔씨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면의 분열을 극복하는 신앙

마태복음 22:34~40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집니다.”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는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분열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문을 우선순위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삶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원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종교사상 세계관들이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원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내면이 분열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종교와 사상, 세계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린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세계관과 사상들을 보십시오. 불교권 세계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과연 인간의 자유와 평등, 참된 행복, 번영을 이루어 가는 나라가 있는지 손꼽아 보십시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사상 교회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잘못 해석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천년 가까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왜곡되고, 편협된 부분만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를 박탈하고, 교황의 해석에 최종적인 권위를 줌으로써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그 단순한 진리의 발견만으로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뜨이게 되고, 편협했던 지식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전하는 종교개혁의 부르짖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인간의 분열된 내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 신앙을 더욱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했습니다. 인간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는 읽지 않고, 그들의 율법 해설서를 읽고 그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 교회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안식일 규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다윗도 배고플 때는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었고, 안식일에도 영혼이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 규례를 인간의 전통으로 편협하고, 복잡하게 만든 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시킨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전통을 어기게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일종의 항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 규례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주말에는 호텔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호텔에서 주말을 보냅니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호텔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어디를 가나 ‘서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서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슬람의 편협하고,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흐름에서 시작해서 나를 교양있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기독교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분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통성 있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인간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의 분열 현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선생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중심 원리와 갈망을 찾고자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 하나를 고르신다면 무슨 논리를 들이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처럼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빠졌더라면 “당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만일 이웃사랑을 강하게 부각했다면 “당신은 사회적 정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공격을 퍼부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37~40절).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분열시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분열되었다는 뜻이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열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이 분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데 감정이 메달라버렸습니다. 또 감정은 너무 풍성한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분열된 것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의 분열 현상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지적 신앙을 추구하면서 말씀 연구와 지식, 역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전무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하나님과 내적인 감정 교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면 잠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지적인 말씀 탐구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 신앙, 행함을 강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파편화되어 있는 신앙은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지적인 신앙, 감정적 신앙, 의지적 신앙이 분열되어 있고, 그 차이가 큼니다. 확증편향을 갖게 되면 그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의 생각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됩니다. 신앙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영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도 치우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영성의 흐름이 어느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힘까지 더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도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해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만의 신앙이 가능하고, 행동만의 신앙이 가능합니다. 인격과 신앙이 통합되지 않고, 어느 한편만 강조하면서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는 ‘하트(heart)’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의 자리입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푸웨케’, 영어는 ‘소울(soul)’입니다.

(14면에 계속)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베이비박스 가정위탁 1호 오창화 집사네



오창화 집사 가족이 모세(가명)를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이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위탁이 된 첫 번째 사례다.

최근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 제이홈 팀장) 네 경사(慶事)가 났다. 새로운 가족 ‘모세’ (가명, 생후 1개월)를 가정위탁한 것. 오창화 집사네가 모세를 가정위탁 한 사실이 특별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중에서 일반 가정으로 위탁된 첫 번째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위탁 아동을 드디어 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는 뒷전이고, 아기 본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쌍둥이 막내가 아기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오창화 집사는 가정에 갓난아기가 들어오면 서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며 함박웃음 지었다. 오창화 집사네가 모세를 위탁한 것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제이홈(입양위탁팀) 지체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줬다. 아기 옷과 유모차, 젖병 등을 보내며 아이 키우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다.

오창화 집사는 모세를 위탁하게 된 것은 정

말 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일이지만 우리나라 가정위탁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제야 가정위탁이라는 또 다른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첫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입양가정도 부족하지만, 위탁가정은 더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정에서 가정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위탁가정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깊은 일을 제이홈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정위탁 제도와 유형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질병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서 보호 및 양육하고, 친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도와 빠른 시간 내에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사업이다.

가정위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대리양

육 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양육)이다. 오창화 집사네는 일반가정위탁에 해당한다.

오창화 집사네처럼 일반가정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섯 가지다. 첫째,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위탁 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셋째,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넷째,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4명 이내여야 한다. 다섯째, 가정에 성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여섯째,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여섯 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5시간 정도 예비위탁 부모교육을 받는다. 그 이후 가정조사(가정방문심사)를 하고 결정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위탁 아동과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일반가정위탁이 매우 드물다. 그 현상이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9년 가정위탁 통계(통계청)를 보면 전

국적으로 11,141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대부분 조부모(친가, 외가)와 친인척위탁이다. 대리양육 가정위탁 66.7%(7,426명), 친인척 가정위탁 25.1%(2,801명), 일반가정위탁 8.2%(914명) 순이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의 일반가정위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929명의 시설보호율이 96.6%이다.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한다. 또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명 중에서 8명이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받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내보내지는 현실이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호 관리 중인 아동 중에서 약 8%만 일반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탁가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다.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사회선교부 제이홈 02-3215-3434

가정위탁 조건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인 가정
5. 가정에 성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6.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부탁합니다



오창화 집사
(사회선교부 제이홈)

얼마 전, 우리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탤런트 신애라 집사님이다. 신애라 집사님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기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만 희망의 소식을 접하면 바로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날도 모세가 우리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오셨다.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1,8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그 아이 중에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기, 보육원에서 입양을 진행한 아기를 제외한 1,300명의 아기들이 일반 가정에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우선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관악구청에서 아기의 성과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서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생모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들이 입양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의 성본창설(성과 이름을 짓고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 아동 일시보호시설에서 아기들을 보호하면서 입양기관에 인계해야 하는데 인력과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임시보호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00명의 아기들은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입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늘도 보육시설에서 부모 없이 자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제 관악구청에서 아기의 성본창설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아기들을 일반가정위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우리집에 온 소중한 아기 모세가 그 첫 번째 열매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모세가 보육시설로 인계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물 나도록 기쁜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애라 집사님은 위탁가정 찾기를 돕겠다며 한결같은 우리집에 오셨다. 신애라 집사님의 유튜브 채널에 모세의 사연을 올리고, 여러 방면에서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다. 정말 감사하다. 부디 더 많은 성도들이 가정위탁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① 가계부채

건강한 소비와 재정관을 지켜라!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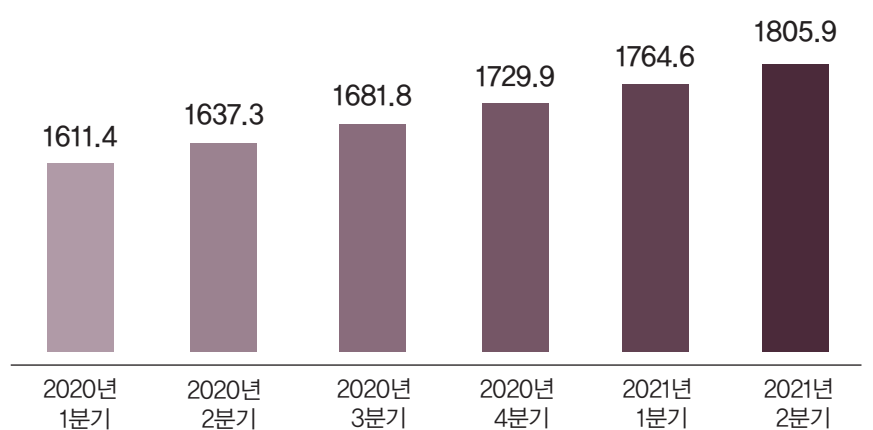
하루가 멀다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를 돌파했다. 그 상승세가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대출 규제 안전지대였던 전세담보대출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재정과 재정관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 첫 번째 코너에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해와 올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다. ‘영끌’과 ‘빚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영끌’과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 대출 중단과 제한을 시작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벌써 은행이 설정한 대출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0년 200.7%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소득 증가보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을 0.9%로 추정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1.1%보다 낮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이 중단되면 연체율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계속 불어나는 가계빚(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과 무너지는 청년들의 재정관

더욱 심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청년들의 재정과 재정관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다.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 3분기 말 청년 신규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청년들의 부채가 우려되는 이유는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20~30대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24%로 상승하고 있는데, 40대는 13.3%, 50

대는 6%에 불과하다.

‘영끌’과 ‘빚투’ 열풍에는 크리스천 청년들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는 순예배에서도 ‘주식’과 ‘투자’ 이야기가 단골 소재가 됐다. 이러한 현상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A 형제는 지난해 지인의 추천으로 가상화폐를 사는데 거액을 투자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 A 형제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다시 가상화폐를 샀다. 이로 인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빚이 생겼다. 설상가상 A 형제가 투자한 가상화폐는 스캠

코인(사기를 위해 만든 코인)으로 밝혀져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교회들도 흔하다. 좋은 건물과 좋은 환경으로 이전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외형을 불리는 교회도 많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한국 교회가 건강한 소비와 재정관을 가르치지 않았고, 무분별한 소비와 빚내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빨리 교회와 성도들이 발 벗고 나서서 건강한 소비와 재정관을 가르치고, 재정 문제로 허덕이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건강한 소비와 재정관은 성도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건강한 소비와 재정 관리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온누리교회 신혼부부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부채상담전문기관 ‘희망을만드는사람들’과 함께 ‘부채탈출 119’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부채로 고민하는 청년, 중장년들이 심각한 재정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문의: 02-3215-3434

전문가 칼럼



이승민 대표
(희망을만드는사람들)

‘희망을만드는사람들’은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빚을 선물하기 위해 모였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도록 돕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가계부채를 단순한 돈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질병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재해로 인식한다.

2015년부터 온누리교회와 함께 ‘부채탈출 119’ 사역을 하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중장년들의 부채 해결을 돕고 있다. 처음에는 청년들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 성도들의 상담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250여 명과 부채 상담을 했는데 사정이 참으로 다양했다. 가족의 부채 문제를 도우려고 신청한 성도도 있었고,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성도도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병환으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었다.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 사치와 소비를 위한 대출을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진 성도들도 상당히 많았다.

미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던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인 올해 내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 전 금리를 인상하였

건강한 하나님의 재정관

다.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였는데, 대출금리와 같은 시장금리는 더욱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을 이자 2.9%, 20년 상환으로 받은 사람에게 월 15~18만 원의 이자가 가중될 것이다.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빠듯한 재무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각 가정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해보기를 추천한다. 재정 건전성 점검은 너무 쉽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건전성이 낮고, 소득이 지출보다 많고 저축까지 하고 있다면 건전성이 높다. 비상금은 최소 3개월분의 월급만큼은 있어야 유사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낮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단

기간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소비부터를 줄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롬 13:8)고 강조한다.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점검하기를 권한다.

1. 꼭 필요한 대출인가.
2.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인가.
3. 소비를 위한 대출은 아닌가.
4. 쉽고 편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5. 사기가 아닌가.
6. 진짜로 받아야 하는 대출인가.

소비가 미덕인 사회, 대출은 자산가가 되는 지름길인 시대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크리스천만큼은 건강한 하나님의 재정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전문가 기고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과 영혼 구원에 대하여



장경문 장로
(양촌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

교회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전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하라고 하면 왠지 부담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것이다. 전도는 왜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죄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마 1:38, 눅 19:10).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공생애 3년 동안 처음부터(마 4:17)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마 1:8) 전도자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 전도의 절정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현장이자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를 전도하신 것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눅 15:7).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돌아온 탕자를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눅 15:20).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을 보시고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셨다(롬 10:15).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꼭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그들이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다. 자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이사가 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창 1:27), 자녀 삼으신 이후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권유형 전도와 복음 전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전도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권유형 전도’와 ‘복음 전도’다.



첫째, 권유형 전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해 집니다” 등의 말로 권하는 전도다. 권유형 전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권유형 전도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97년 가을부터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권유형 전도를 했는데 많은 분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됐다. 전도노트를 준비해서 결과를 기록해봤는데 일 년 동안 교회에 등록한 전도대상자가 88명이나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전도는 100% 성령님이 하신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복음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듯 전하는 것이다. ‘권유형 전도가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 굳이 복음 전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도는 성령님께서 100% 하신다면 나는 그냥 말로만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나의 경험을 말해보겠다.

2005년 봄, 공동체 자매님에게서 남편 전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매님 남편의 사업장에 방문했다. 그리고 평소 하던 권유형 전도를 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에 나가보세요”라는 권유형 전도는 약 1~3분이면 족할 때가 많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장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라”는 권유만 30분 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다. 전도대상자인 자매님의 남편에게 “예수님 믿어 보겠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자매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보세요. 아주 행복해 집니다”라고 권유만 하고 사업장을 나왔다. 발걸음을 돌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했다. 웬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권유형 전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에

쓰인 복음의 메시지는 어렵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두 가지 선물은 평안과 영생이라는 것,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선물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성도라면 익히 아는 내용을 전도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풀어서 쓰여 있다.

복음 전도는 자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자장면을 주고, 비빔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비빔밥을 주듯이 대상자의 눈높이와 성향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짧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대상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요 1:12).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무기’라고 말한다. 지금도 종종 2005년 봄 공동체 자매님 남편을 전도하러 갔을 때 나에게 전도지 <최고의 행복> 같은 복음의 무기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생각한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권유형 전도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 역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전도자의 다섯 가지 자세

복음을 전할 마음과 무기가 갖춰졌다면 전도자의 자세를 알아야 한다. 전도자는 다섯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벧 3:15).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마 1:35)와 말씀(마 4:4, 7, 10)으로 준비하셨다. 전도자 역시 기도로 준비하고, 대상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지(점점), 전할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경치 좋은 갈릴리 해변에서도(마 4:1),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쉬는 상태에서도(요 4:6), 죽음의 현장이자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다. 모든 순간 전도에 집중하셨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매 순간 집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계 3:20).

셋째, 온유와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과 전도 대상자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온유와 겸손은 단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넷째, 인내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대상자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얼굴을 붉히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경험하는 거절감으로 상처받기도 한다. 그래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상자들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3). 그러나 한번 뿌려진 씨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다섯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꼭 필요하다. 한 참 권유형 전도를 할 때 한 지역 교회의 사모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원장님, 전도는 영혼 사랑인 것 아니지요?”라고 물으셨다. 당시 나는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말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여러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마 6:33, 시 126:5, 고전 3:8, 단 12:3, 마 28:20 등).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선물도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 전도할 때 당하는 거절감도, 이 땅에서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도 덮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는 두 개의 전도훈련사역팀이 있다. ‘온누리 전도학교’와 ‘전도폭발훈련’이다. 올가을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문의: 02-3215-3214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나를 보호할 세 가지 룰(Rule)

“몇 년을 사귀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가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 어머니 말에 순순히 따른 남자친구가 밍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게 사실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저와 헤어진 이후 전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전 남자친구는 승승장구 할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고역이고요. 실연의 상처와 자존감 상실, 자격지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이 자매의 질문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먼저 어른으로서 부주의한 말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준 말을 사과하고 싶다. 같은 여자로서 더욱 마음이 아리다.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의논해줘서 고맙다. 어른에게 상처받으면 모든 어른을 피했던 우리 때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배우자라는 응답을 들었다는 것은 거절의 큰 상처를 남게

할 칼 같은 말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생에 대체로 한 번이고, 사귀다 헤어지는 횟수가 더 많다. 더 크게 상처받지 않을 몇 가지 개인적인 룰(rule)을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 깨진 ‘나’는 사랑을 받기도, 사랑을 주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첫째, 상한 감정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피부가 크게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으면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주듯 크게 상한 감정을 방치하거나 탓하지 말고 싸매어줘야 한다. 가장 좋은 소독제는 ‘용서하기’다. 생각날 때마다 상처를 소독하고 좋은 약을 바르는 것이다. 소독 후에는 남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나게 하는 양약을 권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고민은 헤어짐을 전달하는 방식의 미성숙함이 드러난 사건이다.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든지 그것도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가족의 부정적인 의견을 여과없이 전

달한 것은 미성숙으로 보인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어 보인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과정의 미성숙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하트 시그널’이라는 청춘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 예능에 나오는 출연자 중에서 이어지는 커플이 몇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커플이 안 되었다는 상처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제각기 멋진 청춘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 남자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 미성숙함에서 오는 혼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헤어짐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나게 마련이다. 거절당한 나만 피해자일 것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쁜 감정에 휘말려서 나쁜 상상을 하기보다 쿨해 나는 상상을 하는 게 어떨까? 미성숙한 형제와 계속 교제해서 결혼까지 갔을 경우 상상하기, 새로운 가능성(만남)이 열릴 것에 대해 상상하기, 내가 리브가가 되었다고 상상하기 등을 제안한다. 악한 상상은 악을 불러오고, 선한 상상은 선한 열매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셋째, 더 나은 것 선택하기다. 믿는 우리는 영원을 함께 할 존재들이기에 서로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팀 켈러의 ‘이별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자세’ 영상을 참고하면 좋겠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감정은 시간과 함께 열려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이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상처는 소독약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양약으로 치료한다. 이별로 인해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큰소리로 되뇌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배우자를 찾는 여정을 또 한 걸음 내딛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한다.



허은주 멘토
(갈렙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관계의 성숙성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부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라고 여기면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가 전적으로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돌리는 미성숙성을 보인다. 부부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친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해야 하는 것은 부부 갈등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데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갈등의 탓을 돌리는 부부 관계라면 관계 성숙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신념과 주장이 완강했던 남편이 있었다. 특히 가정과 부부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장과 판단이 대부분 옳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던 남편이었다. 그 부부에게는 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완고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종종 화를 내기도 했다. 아내가 그렇게 반응했더니 남편도 아내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생겼다. 남편은 모든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여겼다.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남편은 놀라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우연히 ‘자기반성(self-reflection)’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자기반성 시간을 통해 남편은 “혹시 나의 잘못은 없었을까?”, “항상 아내의 행동과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동이나 말이 아내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부부 관계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이 생기면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일 수 있겠다”, “나의 행동이 아내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성과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동안 부부 사이에 철옹성처럼 놓여 있었던 배우자에 대한 실망의 벽, 깊은 갈등의 벽, 좌절의 벽, 분노의 장벽을 허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부부의 친밀함을 다시 만들어가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 관계의 회복과 재현신을 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게 됐고,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에는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자기반성으로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자기반성은 자기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찰은 작은 것까지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생각과 느낌, 행동을 살피고,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기반성이 일어날 때 관계의 변화를 시작해볼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되고, 관계에서 생긴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2).

부부는 끊임없이 나의 들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빼내고 싶은 충동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 티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분노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듯하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을 ‘자기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들보를 잘 보지 못한다. 어찌면, 부부 관계에서 갈등과 부부 싸움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다면 자기 탐색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자기 이해’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고, ‘자기 이해’를 거쳤다면 ‘자기 수용’이 필요하겠다.

자기에게 있는 들보의 정체를 볼 수 있다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 느낌, 긍정과 부정적 반응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결국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발전하게 된다. 배우자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배우자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나도 이해되고, 배우자도 이해되는, 나도 괜찮고, 배우자도 괜찮은 친밀한 관계로 성장해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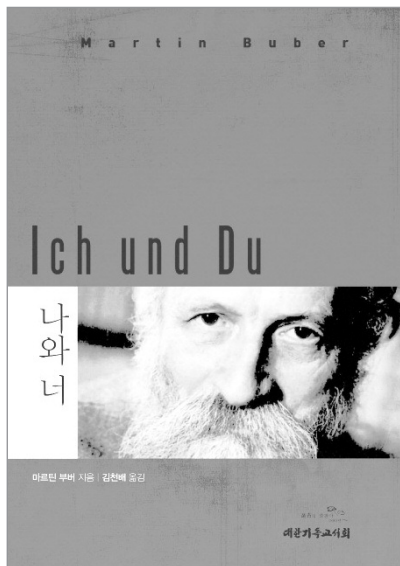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나와 영원자 너(하나님)’와의 관계



〈나와 너〉

마르틴 부버 저

| 대한기독교서회 | 12,000원

20세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한 명이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다.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인 것을 보면 세상에서 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그의 사상에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나와 너〉다.

마르틴 부버 평생에 강의했던 내용, 연구했던 내용, 저술했던 내용의 원천이 〈나와

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은 그의 생애와 사상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많은 책과 강의, 설교가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글들을 인용하곤 한다.

마르틴 부버가 세상에 이토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면 느낌표와 물음표를 가지고 현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현실은 이전과는 달리 보일 것이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현실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르틴 부버는 책 〈나와 너〉를 세 가지 구성으로 전개해 나간다. ‘근원어’, ‘인간의 세계’, ‘영원자 너’가 그것이다. ‘근원어’는 사람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 근원어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나와 그것’이라는 세계와 ‘나와 너’라는 세계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오직 이 두 세계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관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 또는 ‘나와 너’라는 관계가 그것이며 이 관계가 그 사람의 세계인 것이다. 이것이 근원어다.

‘인간의 세계’는 근원어가 현실에서 어떻

게 나타나는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준다. ‘근원어’가 빛이라면, ‘인간의 세계’는 그 빛의 광채라고 보면 된다. 빛은 자신을 밝게 나타내듯이 근원어는 인간의 세계라는 옷을 입고 자신을 나타낸다. 세상과 사람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맺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 세상과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로 맺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만남의 대상’으로 본다. 인간의 비참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만 세상과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비참인 이유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는 결코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으로 맺어진 세상과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침투해서 생명력 있게 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근원어’는 ‘인간의 세계’에 자신을 어떻게든 나타낸다.

‘영원자 너’는 ‘나와 그것’의 세계에 ‘나와 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의 역사와 세계는 끊임없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보여주며 흘러왔다. 이것을 보면 인간 홀로 ‘나와 그것’의 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 혼자인 인간은 결국 꺼져가는 불이요, 굳어지는 화석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극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나와 영원자 너’

와의 관계를 통해서다.

여기서 영원자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일컫는다. 따라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해 꺼져가고, 굳어지는 인간의 세계를 다시 타오르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길은 ‘나와 영원자 너(하나님)’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특정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생명력 있게 하는 창조주로 드러난다. 또한 생명력을 주는 근원과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 ‘나와 그것’의 세계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마르틴 부버의 최종 결론이다.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난해하게만 다가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울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만 아프다. 그 이유는 삶의 현실에 대해 ‘왜’를 물으며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깊은 물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일독을 권한다.



한화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자녀를 위한 기도 방법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
황숙영 저 | 두란노 | 15,000원

심인 말씀, 기도, 합심기도에 대한 설명과 4단계 기도 방식(찬양, 고백, 감사, 중보)을 기록해두었다.

많은 엄마들이 MIP 4단계 기도를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 응답과 변화를 경험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웠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성도들, 기도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부모를 위한 책이 나왔다.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을 섬기고 있는 황숙영 사모(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목사 아내)가 쓴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다.

책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방법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쓰여 있다. 책 전반부에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 방식을 설명했다. 기도에 대해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반부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기도 방법이 나온다.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사용하는 MIP 4단계 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다. MIP 4단계 기도의 핵심인 말씀, 기도, 합심기도에 대한 설명과 4단계 기도 방식(찬양, 고백, 감사, 중보)을 기록해두었다.

많은 엄마들이 MIP 4단계 기도를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 응답과 변화를 경험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웠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성도들, 기도

아프간에 남겨진 어느 크리스천의 편지

“우리를 기억해주시요”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에서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일해 왔으나 지난밤 20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은 이 아름다웠던 나라에 보내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아프간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곳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진다면 흔들리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장막 아래 여러분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살아 있는 약속

꿈을 꾸는가

무슨 꿈을 꾸나

언제일지 어디서일지

이루어질 꿈이리

꿈을 먹지 않고 어찌

하루라도 살아가리

그토록 태어났지

꿈이 삶의 양식이었기에

이루어질 날 아득해도

진정한 꿈은 성취되지

간절한 소망에 주어진

살아 있는 약속이기에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결기대회

“한 영혼 구원의 소중한 깨닫기를...”

지난 8월 29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 성공을 위한 결기대회가 야마가타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그날 주제 말씀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일본에 있는 가족과 함께했던 러브소나타가 떠올랐다. 지난 2017년 러브소나타 동경집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었다. 그런데 집회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랴 부랴 서울에서 도쿄로 날아갔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대로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향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다. 나는 안도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영생에 대해 필사적으로 전했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비록 러브소나타 동경에는 갈 수 없었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지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발 앞서 친정 가족을 위한 러브소나타를 실현시켜 주셨다.



오카 사오리 집사(일본어예배부)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결기대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결기대회 설교자였던 치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원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봅시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과 영광으로 빛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그것을 이뤄가는 시작입니다!”

10월 27일과 28일 있을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 함께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평상시라면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일본으로 달려와 강력한 중보기도와 봉사로 사랑을 주실텐데, 이번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아쉽다. 하지만 갈 수 없는 만큼, 만날 수 없는 만큼, 행사가 1년 반이나 연기된 만큼 더욱 강력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금까지 러브소나타 집회가 일본 전역에서 30회나 개최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모두 채우는 것을 바라고 기도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어 준비된 영혼들이 확실하게 인도되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국경을 넘어,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처음 열리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주의 뜻대로 실현되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악재(惡災)를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야마가타에서 일본 전역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오카 사오리 집사(일본어예배부)

코로나19, '어린이 일대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수로 간증

아들과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하 어린이 일대일)을 마무리하면서 8개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내에게 감사를 전한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필요할 거라는 아내의 조언이 있었다. 직장 일이 바빠서 어린이 일대일 진도가 더디 나갈 때가 있었는데 책거리를 위한 아빠와 아들만의 여행을 제안해준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어린이 일대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한이가 이렇게 빨리 자랄 줄 몰랐다. 나에게는 더딘 시간이 주한이에게는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다. 주한이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 어린이 일대일을 하면서부터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주한이 마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6강까지는 주한이의 집중력이 너무 좋았다. 어린이 일대일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양육했다. 그런데 양육자로서 내 마음이 부족한 탓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다. 주한이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기간도 있었다. 어린이 일대일 공백기를 보내면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어린이 일대일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어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신앙과 애정이 더 깊어진 전용우 순장(한강공동체) 가족.

이 일대일 양육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

주변에 자녀와 함께 어린이 일대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린이 일대일을 홍보하고 난 다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주한이와 내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있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고하고, 그 뜻대로 행할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어린이 일대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주한이와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 주한이가 2살 때까지 우리 부부가 맞벌이하느라 돌보미가 계속 바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출근하면서 주한이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놀고 싶다고 기도했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일대일을 통해 내 기도응답해주셨다.

주한이를 훈계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

었는데 그것은 내가 훈계와 처벌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상황에서 아빠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적용하는지를 주한이와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주한이에 이어서 주하와 함께할 어린이 일대일도 기대된다. 주한이의 소감으로 어린이 일대일 간증을 마친다.

“아빠가 뜬금없이 불려서 시작된 어린이 일대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 교제를 통해서 오랜만에 전도를 해보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중 한 친구와 교회에 간 경험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일대일을 통해 전도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 전용우 순장(한강공동체)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훈련 수로 간증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어색한 시간이 당연해질 무렵, 올해 3월부터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정상 등교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나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다. 기도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연히 기독교방송을 듣게 됐다. 한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큰 감동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온누리 아이스쿨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그 당일에 바로 시작하는 전도폭발훈련이라는 양육과정이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 믿고, 훈련 시작 1시간 전에 접수하여 첫 강의를 듣게 되었다.

나는 소극적인 성격인데다 남의 거절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 또한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청년부 때 받았던 훈련의 과정이 많은 부분 다시 생겼다. 내 인생 어디엔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한자리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내게는 볼 때마다 마음 쓰이는 친구가 한 명 있다. 5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모임에서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하

우연한 기회로 얻은 기적



장진명 성도(서초D공동체)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전도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는 친구다. 친구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 그 안에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는 자기 생각이 확고하여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반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 친구에게 전도폭발훈련 조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

를 위해 중보했다. 조장님의 복음제시와 그룹 기도가 이어졌다. 마지막에 가서 친구는 결신을 했다. 친구의 결신기도를 들으며 너무나 기뻐했다.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믿음이 없어서 이제는 교회에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내게 연락이 왔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큰 감동이 밀려왔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가다 보니 내게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하나둘씩 정리되었다. 필요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던 시간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덤으로 생김이 소중한 시간에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전도폭발훈련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전도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전도에 무지한 사람은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전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우연한 기회로 전도폭발훈련 과정을 듣게 되는 기적을 얻었듯이 내 글을 우연히 본 누군가도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그룹별 훈련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배워주시는 그룹장, 부그룹장, 조장, 순원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또한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장진명 성도(서초D공동체)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로 간증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첫 시간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분명 축복송을 부르고 있는데 왜 슬픔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 나는지 알지 못했다. 그 눈물은 내 상황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였다. 하가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한줄기 끈을 잡고 온 느낌이었다. 각 가정의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려고 온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다. 그 깊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훈련에 참석한 가정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첫날 강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남자와 여자의 죄, 돕는 배필의 의미 등 인상 깊은 메시지들이 많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했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잘 해줘야 한다’는 맥락의 내용일 줄 알았는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은 하가훈 일정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하가훈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계도 수업을 듣기 위해서였다. 결혼 전에도 서로의 가족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림으로 그리고 보니 더욱 복잡한 모습이었다. 자녀까지 생기자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가계도를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남편을



김슬희 성도(대전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통해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배웠다.

위해 중보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성덕 소장님의 부부치유 강의를 통해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친밀감을 향한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미해결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강의 중에 본 영상을 통해 갈등의 주체자인 부모들보다 어찌면 더 곤란스러운 처지에 놓인 아이를 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과 마주

하고 대화할 때 남편의 눈물을 보았다. 평소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느꼈다.

하가훈을 수료하면서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다. 자기 전에 나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늘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게도 말해달라고 독촉하면 무미건조한 말투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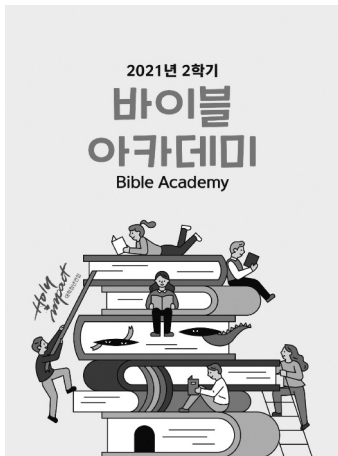
는 게 서운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주고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돌아보면 하가훈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한 것들이었다. 손을 잡고 다니고, 대화할 때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서로 안아주는 단순한 행동들이었다. “그랬구나”, “사랑해”, “미안해”, “힘들었겠다”라는 단순한 말들이었다. 그 단순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동안 공감이 없어서 어긋나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합이 있을 때 진짜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다. 나보다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공감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가훈은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였다.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참가했는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을 배우는 데 소홀히 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우리 부부를 하가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가훈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 김슬희 성도(대전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하반기 바이블아카데미 개강

필수 과정 CDC 및 선택 과정 10개 강좌 개설



대청 하반기 바이블아카데미 10개 강좌가 일제히 개강한다.

대학청년부 하반기 바이블아카데미가 9월 29일 일제히 개강한다. 필수 과정 ‘CDC’와 선택 과정 ‘성경 탐구 40일(신약)’, ‘요한복음’, ‘빌립보서’, ‘일대일 양육자반’, ‘관계 기술훈련학교(본훈련)’, ‘우리동네 성지순례(전주편)’, ‘성경시대 문화와 관습’, ‘돈위리’, ‘캐스천(깨놓는 크리스천)’ 강좌를 개설한다.

‘CDC(Christian Discipleship Co

urse)’는 대학청년부 리더십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주 동안 유튜브 녹화 강의로 진행된다. 대학청년부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교역자 추천을 받은 청년이 대상이다. 회비는 1만 원.

선택 과정 ‘성경탐구 40일(신약)’과 ‘요한복음’은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각각 유튜브 실시간 강의와 줌(Zoom)으로 강의를 이어진다. 회비는 무료(교재비 별도). ‘빌립보서’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줌(Zoom) 실시간 강의를 한다. 회비는 무료.

‘일대일 양육자반’은 9월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6주 동안 줌(Zoom)으로 진행된다.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료한 청년이 대상이다. 회비는 무료 ‘관계기술훈련학교(본훈련)’는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줌(Zoom) 실시간 강의를 한다. 1학기 관계기술학교 수료자가 대상이다. 회비는 무료(교재비 별도). ‘우리동네 성지순례(전주편)’에서는

이덕주 교수(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신학)가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튜브 녹화 강의를 한다. 회비는 1만 원. ‘성경시대 문화와 관습’에서는 임미영 교수(서울신학대학교)가 강의한다. 회비 1만 원. ‘돈위리’는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올바른 관리 및 소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김남순 대표(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와 김의수 센터장(돈걱정없는 우리집 지원센터)이 유튜브 녹화 강의를 한다. 회비는 1만 원. ‘캐스천(깨놓는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갖게 되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장경철 교수(서울여자대학교)와 김진혁 교수(햇빛트리니티 조직신학)가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튜브 녹화 강의를 한다. 회비는 1만 원.

바이블아카데미 참가신청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실시간 강의는 1개 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759

장로사관학교 2학기 개강

피택 장로 47명, 올해 12월 장립 예정

온누리교회 장로로 피택된 안수 집사들을 위한 장로사관학교가 지난 9월 4일(토) 2학기를 개강했다. 장로사관학교는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 피택자를 위한 새벽예배로 진행된다. 다음세대, 온누리 선교, 교회 크기 문화와 변화의 원리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피택 장로들은 장로사관학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New-Coding’을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 창의적인 사역과 깊은 영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피택 장로들이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를 패스하면 오는 12월 4일 장로장립식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이번 피택 장로는 47명이다.

9월 화요성령집회 ‘가을의 노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9월 화요성령집회 ‘가을의 노래’가 막 올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9월 화요성령집회 ‘가을의 노래’에서는 7월 이서진 목사 ‘복 있는 사람의 노래(시 1:1~6)’, 14일 최성민 목사 ‘목자를 향한 양의 노래(시 23:1~6)’, 21일 김윤식 목사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노래(시 51:1~19)’, 28일 김승수 목사 ‘예배자들의 노래(시 150:1~6)’를 주제로 예배를 드린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시스템에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온누리교회가 9월 28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이어간다. 매일 오후 5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선교사들과 선교 리더십, 현지 크리스천들이 보내오는 소식과 기도문이 하루 한 편씩 게재되고 있다.

C 선교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J 선교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땅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J 형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처형하고 있다”면서 “형제자매들이 탈레반의 핍박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교사와 한국 교회 교류 돕는다!

온라인 ‘비타민C’ 선교사 87명 참가

2000선교본부 국제동원팀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일 시작된 선교사를 위한 비타민C는 9주 동안 진행된다. 32개국에서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87명이 참가하고 있다.

온라인화 및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비타민C는 온누리교회 목회관, 선교, 양육 과정 등을 선교지 목

회자와 성도들에게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1년여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허복만 장로(2000선교본부 국제동원)는 “비타민C는 선교지 교회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연결고리”라면서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교류를 도울 비타민C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코치반 모집

아름다운동행 코치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19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3만 원(교재비 포함)이다. 아름다운동행 코치반은 ‘아름다운동행 지원자반’ 수료자가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면서 친밀감을 재충전하고, 부부코치로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문의: 010-9041-5538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10만 원이다.

하가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749-6981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예배 반주자 모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301호실

안산 온누리M센터(이하 안산M센터) 베트남예배 반주자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301호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반주자는 안산M센터에 직접 와서 사역해야 한다. 안산시 근처에 거주하는 성도

들을 우대한다. 이익식 팀장(안산 온누리M센터)은 “실력이 좋지 않아도 베트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성도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문의: 010-3708-7926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온누리전도학교 서빙고반, 양재반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빙고반 9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실시간 강의, 양재반 9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반 9월 26일까지, 양재반 10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

만 원(교재비 포함)이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일상에서 복음의 핵심을 짧게 전할 수 있는 생활전도법을 교육하고,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활용해서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5219-8707(서빙고)

010-9001-6243(양재)

공동체 성경읽기가 뜬다!

코트디부아르 56개 지역 280여 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과 G&M(글로벌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코트디부아르 공동체 성경읽기가 부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지역 목회자 106명을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경 세미나에서는 오디오 성경 활용법, 공동체 성경읽기 교육 등이 진행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해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오디오 성경을 활용한 공동체 성경읽기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8개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했고, 56개 지역에서 280여 명의 성도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간증

“복이 있나니”

석 달 전, 이사를 온 목사님은 매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 해주셨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말(Yacouba어)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들으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 목사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날부터 나는 우상을 버리고 진실하게 창조주를 섬기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 Manka Michel 성도

■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 간증



/ 김창일 목사(한나의 집)

그 사랑에 힘입어

한나의 집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다. 청각, 언어, 시각, 정신,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4명, 50대 1명, 30대 3명 총 8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는 원래 서울역과 청량리역 일대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다. 그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눈에 이상이 생겨서 잠시 사역을 쉬고 있었다. 2003년 양주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면서 갈 곳 없는 장애인 8명을 만나게 되었다. 장애인사역은 생각지도 않았다. 목사님이랑 살고 싶다는 그들의 간곡한 요청에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기도하며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랑 살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승낙을 받고 경기도 양평군의 폐교 귀퉁이 공간을 빌려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한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가족들과 살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은 인생의 목표인 동

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2017년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자립했다. 손과 발은 못 쓰지만 다재다능했던 그 형제는 자립훈련센터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멋지게 자립했다.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 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 또 한 명의 장애인 형제가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 명의 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나의 집은 장애인 수급비와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손길과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지난해 봉사자로 오시던 온누리교회 성도님의 신청으로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됐다. 추석이 지날 무렵 맛있는 쌀을 여러 포대를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른다. 겨우내 그 쌀을 먹으면서 한나의 집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훈훈했는지 모른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한나의 집 형제들은 자립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후원문의: 010-5542-2440**

■ 갈렙선교학교 수료 간증



/ 조다윗 성도(가명, 동대문중앙공동체)

갈렙처럼 세워지기를

대학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다.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자 선교사임을 강조하는 것과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였던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교’라는 단어가 내 마음 한편에 가시지 않는 영적 부담으로 남아있었다.

몇 해 전 V국에 소재한 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 V국에서 생활이 시작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충격, 건강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 타국에서 내일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 적응 문제까지 생겨서 더욱 힘이 들었다. 고국이 그리웠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동안 선교지 아웃리치와 후원하는 선교사의 기도편지를 받고 기도를 했지만, 내가 직접 편안하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선교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보니까 선교현장과 선교사님의 필요에 둔감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기록하지 않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다. 젊은 시절 막연하게 품었던 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가 다시 떠올랐다. 나와 아내는 몇 해 전부터 앞으로의 삶을 기도하던 중에 여호수아의 동역자요, 진정한 헬퍼였던 갈렙의 삶을 소망하게 되었다. 갈렙선교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번 갈렙선교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선교와 헬퍼십, 타문화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국내 선교 현장 체험을 통해서 현장 정보와 사역 전략, 선교지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점검하면서 내게 맞는 선교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헬퍼로서의 섬김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번 갈렙선교학교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여러 갈렙님들 역시 선교인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섬겨왔던 일들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누며 은사와 역할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신실한 헬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인생 후반부를 계획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갈렙선교학교로 초청하고 싶다.

■ 아름다운동행 스태프 간증



/ 김동진, 박수현 부부

정말 아름다운 동행

순식간에 8주가 지나갔다. 처음 아름다운동행 온라인 과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염려와 의문이 있었다. 원래 대면으로 진행하던 사역을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온라인 만남인데도 참가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참여할지, 비대면 사역만큼의 은혜와 변화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동행 지원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다. 2주차, 3주차가 되어도 서먹서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만큼 같은 공간, 한 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보다 조장의 역할이 더욱 어려웠다. 대면 모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까지 신경 쓸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에 게만 집중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친밀감이 덜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조급하고 불안했던 내 마음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조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각 가정의 깊은 나눔이 이어졌다. 위로와 칭찬이 풍성해졌

다. 두 가정이 한꺼번에 불참한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선하게 역사하셨다. 한 가정과 줌(Zoom)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하셨다. 비대면인데도 마치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우리 부부도 같이 머물렀다.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완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고민들이 사라지면서 비대면 사역의 장점이 눈에 들어왔다. 자동차로 이동 중일 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대면에서는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8주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팀원들과 동행하고, 봉사자들과 동행한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 바이블아카데미 ‘역사로 읽는 성경’ 수료 간증



/ 김효진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아는 만큼 읽어지고,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다!

바이블아카데미 ‘역사로 읽는 성경’ 과정을 신청하게 된 것은 평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어왔다. ‘그렇구나’ 여기고 넘어갔다. 이 강의를 들으면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신청했다.

바이블아카데미 역사로 읽는 성경 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그곳에 나오는 지역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성경이 아는 만큼 읽어지고, 내 삶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고 체험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한 민족임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되었다. 오늘날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성경을 그저 오래된 옛날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는 과거에 있었던 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도 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에 쓰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읽을 때와 알고 나서 읽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진 바이블아카데미 ‘역사로 읽는 성경’ 과정을 수강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선교사를 위한 ‘비타민C’

허복만 장로
(2000선교
국제동원팀)

비타민C(Vitamin C)는 2008년부터 중국 W지역 교회와 교류를 시작한 온누리교회 C 장로님에 의해 대동했다. 중국 교회들을 깨워 선교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기초 작업으로 중국 W지역 교회들과 교류를 이어오다 Acts29비전빌리지로 중국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온누리교회의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비타민C가 계획되었다. 2011년 10월 시작한 비타민C는 2019년 10월까지 매년 2회(봄, 가을) 총 17회 개최되었다. 중국 교회 리더십 1,550여 명이 참석했고, 201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그룹 40명을 시작으로 브라질,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등 매회 1개국씩이 참가했다. 2019년 10월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총 9개국에서도 참가해 누적 참가자가 1,700여 명에 이르렀다.

비타민C에 참석한 중국 교회 리더십들은 소개되는 모든 사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온누리교회의 검증된 사역들이 중국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교회의 요청에 따라 몇몇 사역 기관(양육, 예배, 회복, 공동체 등)들과 연계해서 현지 사역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역 형태는 온누리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융합선교의 초기모텔을 실현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사역을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비타

민C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2000선교본부는 가장 먼저 선교사들을 위한 비타민C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약 3개월 전부터 사역본부별로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부터 9주 일정으로 온라인으로 비타민C가 시작되었다. 32개국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87명이 참가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비타민C가 지속되고, 더욱 확장되어야 할 이유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제약이 많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의 힘이 강력한 중동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의 비자 연장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거나 비자갱신을 미루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와 동역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전개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지 교회들의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현지인들이 교회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많은 선교사들이 “비타민C가 선교지 지역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갈 수 있는 강력한 선교 툴(tool)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선교지 교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다. 비타민C를 경험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융합선교가 더욱 확장될 것을 확신한다.

권사칼럼

“권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순희 권사
(성북공동체)

지난번 온누리신문에 더스킨 화장품 기사가 나가고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수원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이셨는데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의 동생은 모잠비크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만나 결혼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역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생겨 자비량 선교를 위해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업을 꾸려야 할지 막막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때마침 온누리신문에 더스킨 화장품 기사가 나간 것이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선교사님의 사정을 듣고 바로 모잠비크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던 더스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모잠비크에 더스킨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진행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다. 때마침 모잠비크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그 편에 화장품을 부탁했다. 그 덕분에 큰 탈 없이 세관을 통과해서 모잠비크까지 더스킨 화장품이 갈 수 있었다. 현재 모잠비크에서 더스킨 화장품 반응이 정말 좋다. 모잠비크에서 열리는 엑스포에도 더스킨 화장품이 진열됐다. 현지 바이어들도 물건을

찾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얼마 후 선교사님께 또 반가운 연락이 왔다. 첫 마디가 “권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였다. 더스킨 화장품이 모잠비크에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 가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기도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생긴 믿음이 모잠비크 땅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도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모잠비크에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이후 이웃 나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도 더스킨 화장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 중이다.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사든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들도 붙여주고 계신다. 더스킨 화장품에는 없는 색조 화장품(립스틱, 섀도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동역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더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선교지에 들어가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기대된다.

지난 여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을 경험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선교사님의 “권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라는 고백이 새삼 다르게 다가왔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서 사역의 장을 넓혀 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더스킨 화장품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계속).

신앙에세이

주기철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일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걸 어쩔 겁니까? 성도님, 정말 미안합니다.”
언젠가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연거푸 사과를 드렸지만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난 그분의 노(怒)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실수를 한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자들이야말로 실수할 가능성이 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결과가 빚

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 게다가 그 실수에 연관된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욱 뼈아프다. 이 같은 사항이 나에게 해당한다는 걸 인식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잃고 밤낮까지 앓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수가 줄어야 정상인데, 왜 더 늘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치밀고 들어오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한동안 깊은 수렁에 있던 나는 냉철한 반성과 아울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아직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퇴근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정면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쳤다. 햇빛 가리개를 내렸는데도 빛이 날카롭게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갑자기 짜증과 함께 해에 대한 미움이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해를 향해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없겠어? 나는 지금 운전하는 중

이라고 너는 나에게 너무 배려가 부족하구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한참을 웃으면서 속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보 같은 나를 실컷 비웃었는데 역설적으로 내 속이 시원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날 나는 나를 용서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다. 못나서 참 고생한다고 말이다.

여호와와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의 실수를 굳이 들춰내지 않으셨다. 다만 그 시험으로부터 아브람과 사래를 구해주셨다.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이삭도 탓하지 않으셨다. 역시 아무 일 없도록 그 부부를 지켜주셨다. 분기탱천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잘라버린 귀를 도로 붙여주셨다. 자기 열심에 겨워 성령의 사람 바나바와 결별했던 바울도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기까지 그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주께 용납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주의 나라를 그러럼 혁혁하게 빛냈던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고, 주님의 자비는 그 허물을 극복하게 하셨다. 물론 이것이 잦은 실수로 일을 그르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수를 덮고자 가져다 쓸 만한 재료도 아니다. 실수한 자의 미안함은 늘 여전하다. 그러나 그 미안함이 벗어날 수 없는 정죄로 끝까지 남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 미안함이 또 다른 실수를 막는 재료로 활용될 때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역지사지의 입장도 고려하게 하는 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실수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다. 나는 그렇게 나를 용서했고, 또 내가 실수를 저지른 분에게 또 다시 용서를 구한다. 주의 자비를 구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면의 분열을 극복하는 신앙

육체와 구별되고,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뜻’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 영어로 ‘마인드(mind)’입니다. 지성, 이해력, 상상력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도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정교하게 구분했지만, 영어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분열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열되며,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이 파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해결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분열된 내면이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지성, 감정, 의지를 통합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도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갈 뿐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그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면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전혀 없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면이 통합된

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균형 잡고, 통합되는 힘

부모들이 자녀들의 지성을 북돋아 주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성지수입니다. 지능지수(IQ)를 감성지수(EQ)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지성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성지수(SQ), 관계 지수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하고, 공동체와 친구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능지수가 높다고 공부만 하게 하면 감성지수와 사회성은 어디에서 형성합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안에서 함께 삶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진 우리의 내면이 균형을 잡고,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행복합니다. 내면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참된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활벗고 굶주린 영혼이 있으면 내 자식이 굶주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분열된 내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창조, 그 놀라운 신비



오경숙 집사
(OCC공동체, 한국
창조과학회 본부장)

고2 가을,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이자 청소년 복음화율 1%였던 지극히 전통적인 제주도의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도, 하나님도, 기독교 문화도 생소한 나는 모든 것이 궁금했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고,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말씀해주셨고, 응답해주셨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특히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과 설화 같은 창조이야기는 동이가 되지 않아서 믿음 한편에 ‘보류’ 딱지를 붙이고 멀찍이 방치해 두었다.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학원 시절, 처음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내 믿음의 새로운 창을 열어 준 날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충격이었다. 기존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넘겼던 과학 지식이 모두 새롭게 다가왔다. 과학의 한계에 너무 큰 동의와 공감이었다. ‘보류’ 딱지를 붙이고 방치했던 것들을 펼쳐내 직시하는 담대함이 생겼다. 그 후 하나님을 과학에 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고 원리를 밝혀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다. 그것이 과학이 가진 한계이고, 과학을 하는 우리가 가진 한계이다.

내 전공은 물리학이다. 작은 빛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시세계를 연구한다. 12년 동안 연구원으로 몸담았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았다. 태양의 에너지원인 핵융합 원리를 지구상에서 구현하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다음세대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다.

‘핵’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맞다. 핵폭탄의 원리를 에너지로 활용한 것일 뿐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다. 자연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핵력이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양성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

자 외에 중성자를 발견한 것은 1932년이다. 원자의 핵에 양성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원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자석의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있는 것 같이 양성자끼리만 있으면 서로 밀어낸다. 하지만 중성자가 있음으로써 양성자를 작은 핵 안에 묶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밝혀진 가장 강한 핵력이다. 그 다음 약한 힘은 전자기력에 해당한다. 자석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당기는 힘도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력보다 작은 힘은 핵 안에 불안정한 중성자들에 의해 분열되는 약한 핵력이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작은 힘은 중력이다. 규모로 보면 중력이 가장 큰 힘일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작은 힘이다. 중력의 힘을 1로 둔다면, 약력은 10³³배, 전자기력은 10³⁶배, 핵력은 10³⁸배이다. 가장 작은 세계가 가장 큰 우주보다 강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자연계를 관찰하고 힘을 발견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힘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그 힘들을 활용할 뿐이다. 강력한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제2차 세계대전 최후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힘을 알아내고 사용하는 것 못지않은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온 세계가 체험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의 수많은 민족이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진 태양을 숭배해 온 것은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고, 창조주에 대한 무지함이다. 힘을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받고 우쭐대지만, 그 힘을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 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과학에서는 세상의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믿음이 과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의 한계이다. 과학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편협한 믿음이다. 누구나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부모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의 처음을 있게 한 존재는 자연 스스로가 아니라 창조주임을 알아야 세상도, 과학도 올바르게 보고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CGNTV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 Hymnstory

출연 가수 윤복희, 배우 허준호

9월 16일, 23일, 30일 (목) 오전 11시 방송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출연 개그맨 오지현 가족,
개그우먼 김경아, 가수 이도진

9월 13일, 20일 (월) 오전 11시 20분 방송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출연 홍성원, 홍원기 부자

9월 17일 (금) 오전 11시 방송